

# 고은 불교대하소설

**무**욕도의 수행자들은 그곳에서 한 살도 지내지 않았다. 오랫동안 무인도로 방치되었던 그곳을 개척한 인담이나 우녀는 아직 그대로 그곳 파도소리에 예위적인 도량을 지키고 있지만 그들에게 귀의했던 사람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민화는 천상에 태어나 천상의 즐거움 삼 끝에 천상 최후의 고통을 겪은 나머지 다른 세상의 증상으로 나타나 하였다.

그와의 도반이었던 공보 남작도 지옥의 여러 곳으로 내려가 그곳의 고통 때문에 한 거품도 권할 때가 없는 온갖 지옥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남작은 특별히 자옥에 떨어질 만한 죄업을 지은 것이보다 그곳이 어떤 세상인가를 평소 체험하기 위한 자기 선택의 비담도 지니고 있었던 것인지 모른다.

## 지난 줄거리

수미 4주 삼부주 인간세상의 바로 밑에 이루어진 여러 지옥을 통하여 그는 영광(榮光)의 고통 속에서 온갖 중생들의 고통과 함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마치 남작이 보살행을 하는 것 같은 경지도 때때로 내보이고 있었다.

무욕도에서 떠난 무전은 고기 속의 내장에 살고 있는 벌레가 되었다가 그 뒤로는 자라가 되어 물가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지금으로부터는 그런 무전이 어디에 태어나서 어떤 삶과 죽음을 되풀이하고 있는가를 알 길이 없다.

파멸 역시 행방이 묘연한 채 나고 죽기를 천란하게 되풀이하고 있을 것이다.

무전 파멸은 본디 무욕도 일대의 사나운 조류와 육종으로 난파한 뱀사공이었는데 때때로 그들의 바다로 돌아간 이래 운회를 실현하고 있는 중이었다.

한때 인담에게 큰 기대를 걸게 했던 수미는 어디에 가 있는가? 아니 그와의 단박인 수미는 무욕도의 나날이 살아져서 육지로 나가 조선후기의 활랑한 상어를 방랑하는 일에 나선 이래 지금은 어느 곳에 머물고 있는 지 모른다.

아니, 그가 어디에선가 객사라도 한 것이라면 지금쯤 어떤 중생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연젠가는 이런 사람들의 운회 전생(轉生)의 행적들이 어느 정도 밝혀지겠지만 아직 그들이 수미산 외곽지대에서 수미산쪽으로 다 가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기를 거듭하는 것을 무욕도의 인담과 우녀는 그들의 높은 안목으로 짐작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들 자신의 공부에 기울여야 하였다.

인담은 목조산(木造山)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녀는 영불선으로 새로 건너온 사람들을 이끌기도 하지만 그녀 자신은 보타락가의 관음 화신인

듯 삼겨지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인담과 우녀는 너무나 뚜렷한 관계이고 서로 잘 아는 처지여서 어느 때는 오랫동안 함께 한 부부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아무런 허물도 끼어들 여지없는 오누이 같기도 하며 서로 진리를 향하는 경향을 이어가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지극히 아름다운 사람으로서의 정신을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욕도의 이상적인 동료였던 합두와 불이가 그들의 어떤 경지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그들을 자주 떠올리곤 하였다.

인담과 우녀는 또 하나의 인담과 우녀로서 불이와 합두인 것인가. 그런 불이와 합두가 무욕도를 떠날지도 오래 된 것이다.

인담이 그렇듯이 불이도 무욕도의 다른 도반들에게는 특이한 시호(詩號)이었다. 본디 선비였다가 무욕도에 건너온 것이었다.

여기에 빠인 미모를 지닌 합두가 그런 불이의 대상이 되어준 것이다. 합두는 무욕도 건너의 호서

어떤 경우에는 죽지 않은채 그대로 다른 세상에 태어나기도 하는 이적(異蹟)도 없지 않았다.

불이 합두는 아귀계에 태어나서 서로 아귀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다른 세상에서는 애육에 빠지기도 하지만 끝내 그들의 영원에 의해서인지 사바세계로 다시 태어나 중국 오지의 둔황 막고굴을 그들의 도량으로 삼고 수행을 하는 것이었다.

막고굴은 오랫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곳의 암굴도랑에서 그 형형색색의 불교 조각들과 채색벽화 찬정화의 현란한 아름다움을 삼고 일상으로 삼아 공부를 하는 행운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도 끝내는 그곳을 떠나야 할 때가 가까워졌다.

이러는 동안 무욕도에서는 한동안 인담과 우녀만의 섬으로 있다가 대외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어서 소석이라는 처녀도 건너 온 것이다.

대외는 일부러 하루의 일정에 맞춰 공부하기 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일과 불이 자체를 공부로 삼고 경전 따위보다 바람소리 파도소리를 진리로 삼고 있는 사람이다. 소석은 우녀의 지도를 충실히 따라 열불선의 첫걸음을 지날 수 있었다.

어쩌면 소석행자는 지난 날 합두가 차지한 자리를 빼앗아 우녀를 닮아가는 것인지 몰랐다.

대체 수미 4주를 바치고 있는 금표와 수문 그리고 중풍의 엄청난 세계까지도 그들에게는 그동안 살아온 전생들의 세계인 것이다.

그것은 새삼스럽게 우주에의 깨달음이기도 한 것이다.

아니 그들이 살고 있던 삼부주로부터 먼 곳에는 삼부주와 어슷비슷한 승신주 우화주 등이 있는가 하면 7산 8해를 이룬 세상이나 그 엄청난 세상을 에워싸고 있는 철위산의 위용까지도 다 내려다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무욕도에서 우녀의 눈이 우주의 여러 곳을 떠돌라는 상상과는 또다른 우주에의 확인이기도 모른다.

그래서 불이는 '어찌자고... 뭘 하겠다'고 이 세계는 이렇게 대단 말인가. 이 세계는 도무지 허황해

서...라고 투덜대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불이와 함께 있는 합두는 그렇게 커다란 세계를 내려다보는 동안 7산 8해 가운데의 바다에서 그곳 도리천의 하늘에까지 풍겨오는 향기를 맡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은 우주 앞에서 '아아'라는 감탄사 밖에는 나올 것이 없었다.

아마도 그들은 그런 도리천에서 사는 일을 누군가를 기다리는 뜻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았다.

말하자면 같은 도리천에 태어난 사람들이나 무욕도의 사람들까지도 마치 아서 오라, 아서 오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것인지도 몰랐다.

이제까지의 거점이었던 무욕도나 무욕도가 있는 삼부주 그리고 그밖의 세 땅과 바다 산들의 세상 그 바다속의 아귀계와 삼부주 밑의 지옥까지도 다 자취없는 상태의 소멸에 이르게 된다면 그곳을 떠돌던 수행자들은 거점을 목격의 상층 세계 무욕계 그리고 허공계의 우주로 옮겨버릴 지 모른다.

"아아."

그림·조항숙

## 수미산



**연젠가는 무욕도 사람들의 운회 전생 행적들이 밝혀지겠지만 아직 그들이 수미산쪽으로 다 가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제 현실은 무욕도만의 현실이 아니다**

**수미산의 우주라는 광대무변한 세계를 또 하나의 커다란 현실로 받아들여야 했다**

**무욕도나 삼부주 그리고 아귀계와 지옥까지도 다 자취없이 소멸한다면 그곳을 떠돌던 수행자들은 거점을 색계·무색계·허공계로 옮길지도 모른다**

그림 바다 가까운 농촌의 청상과부였다가 죽은 남편의 무덤을 뒤로 하고 무욕도에 건너오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욕도에서 남녀사이기는 하지만 서로 공부를 격려하며 동

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가지 놀라운 사실은 불이는 전생의 일촌(林欸) 후신이기도 하였다.

일촌은 누구인가. 고려의 불우한 천재시인이었다. 인담이 금속의 스승인 고려의 선객(仙客) 담인의 지시로 어떤 암굴 속에 있는 일촌의 문집을 찾아내어 세상에 밝혀낸 사실과 함께 그런 인담의 문하에 들어온 선비 김종무가 바로 일촌의 후신인 사실은 실로 기이한 바였다.

그 김종무가 곧 불이라는 법명을 받은 수행자가 되어 선과 시의 세계에 들어가 있게 된 것이다.

두사람 불이와 합두는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무욕도의 삶을 마치고 다른 세상에 태어난다.

이제까지 무욕도의 수행자들 다른 세상에 태어나는 일은 대체로 죽은 뒤에 태어나는 것이지만

그림 바다 가까운 농촌의 청상과부였다가 죽은 남편의 무덤을 뒤로 하고 무욕도에 건너오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욕도에서 남녀사이기는 하지만 서로 공부를 격려하며 동

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가지 놀라운 사실은 불이는 전생의 일촌(林欸) 후신이기도 하였다.

일촌은 누구인가. 고려의 불우한 천재시인이었다. 인담이 금속의 스승인 고려의 선객(仙客) 담인의 지시로 어떤 암굴 속에 있는 일촌의 문집을 찾아내어 세상에 밝혀낸 사실과 함께 그런 인담의 문하에 들어온 선비 김종무가 바로 일촌의 후신인 사실은 실로 기이한 바였다.

그 김종무가 곧 불이라는 법명을 받은 수행자가 되어 선과 시의 세계에 들어가 있게 된 것이다.

두사람 불이와 합두는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무욕도의 삶을 마치고 다른 세상에 태어난다.

이제까지 무욕도의 수행자들 다른 세상에 태어나는 일은 대체로 죽은 뒤에 태어나는 것이지만



### 여성 질병의 원인과 항요법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항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임마의 뱃살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 김혈(배꼽)에 항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하여 자율신경 내분비 계통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항비는 프리오르프론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오르프론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불순, 생리통,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항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항요법 항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이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무릎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뱃살이 검고 딱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는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바짝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 있다.	( )
18. 당노와갑상선으로 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

### 청소년 심성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자비동자모시기 운동

(청소년 회관건립기금)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 청소년은 우리들의 후계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밝고 맑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멋스러운 심성을 갖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책상, 응접실 벽에 걸린 한 점의 자비동자를 보고 사랑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사회를 위해 자비를 포용할 수 있는 불교청소년이 되어 사회가 필요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좋은 가정을 꾸밈이 되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끄는 가정 보살은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훌륭한 청소년을 키우는데 바치기위해 효종스님(바라밀포교원장) 은갖 정성을 다하여 그런 자비동자를 가정마다 자기동자모시기 운동을 벌여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여기서 모어진 성금은 전액 청소년회관 건립기금으로 사용되게 원을 새웠습니다.

성장하는 아들, 딸들에게 밝은 얼굴, 밝은 모습, 아름다운 마음,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성원하시오! 자비동자 한 점씩 모시기 운동에 꼭 동참을 바랍니다.

**불자간병인을 원하십니까?**

무료간병인을 쓰실분은 대한불교 바라밀 간병인협회로 연락하십시오. 고통받는 환자를 부처님 공경하듯 정성껏 간호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주문서 우편배달해 드립니다. 각 은행 농업 우체국 지로번호 762665 바라밀

주 최: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부설: 바라밀간병인 협회  
자비동자 한점 20,000원  
부산지부: (051)633-6412~3 FAX: (051)631-3884